제 72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Ahn Changho and the Origins of Korean Globalization : From the Independence Movement to the Controversy

Jacqueline Pak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초빙교수

대한민국에서 헌법주의적 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안창호(1878-1938)는 일제시대(1910-1945)의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한미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는 선 얏센, 간디, 마틴 루터 킹과 비교되기도 하는 인물로써, 선 얏센보다 진보적이며, 간디나 마틴 루터 킹과는 달리, 평화주의적 그리고 문화·정신적인 쇄신의 방법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독립운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995 년 이래 안창호에 대한 평가에 있어 논란이 있어왔다. 그 논란 중에 몇가지를 들자면, 점진주의적 평화주의자인가 아니면 과격한 군사주의자인가, 혁명적인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민족주의운동의 삼자분리인가, 문화적 민족주의의 수정주의인가 아니면 혁명적 민족주의의 신수정주의인가, 애국주의인가 아니면 협력주의인가 등이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안창호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적 민주주의자이다. 그는 헌법주의적인 구조를 지닌 흥사단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다. 또한 안창호는 점진적인 평화주의자나 문화적인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인 혁명가, 선구자적인 협회설립자, 헌법집필가, 전쟁전략가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화의 시초는 김영삼 시대나 88 올림픽의 전두환 시대라기보다는, 안창호 시대의 세계에 퍼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Q&A>

Q. 안창호와 강연자의 증조부는 어떤 관계였나?

A. 혈연관계는 없다. 본인의 증조부는 1910 년대 당시 자원조달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 때문에, 안창호와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Q. 강연자가 안창호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A. 본인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본인의 증조부와 안창호가 같이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서 자랑하곤 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미국은 레이건정부였던 1980년대,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증조부와 안창호의 관계를 기반으로 본인의 뿌리를 찾아갔다. LA에 직접 가서 안창호와 증조부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Q. 애너키스트들의 독립운동이 내생적이었나 외생적이었나?

A. 많은 스터디 그룹과 페미니즘 등 내외적으로 혼합적인 형태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Q. 서양은 안창호 연구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

A. “안창호는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안창호가 대한민국의 첫번째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이 이상하다.” 등. 서양학자들의 문제점은 이데올로기적인 독단주의가 팽배하며, 일본에서 나온 자료 위주라는 점이다.

Q. 안창호와 세계화는 어떤 관계인가?

A. 안창호 당시 대한국민회의 네트워크는 diaspora 라는 말로도 대변되듯이 세계 여러곳에 퍼져있었다. 이를 대한민국의 세계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